

소설가 11명이 그려낸 우리시대의 노동 현실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강명 외 지음



흔히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이라는 표현을 쓴다.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진투구같은 정치상황은 물론 고물가와 취업난, 주택난 등이 그러하다. 게다가 미증유(未曾有·지금까지 한번도 있어 본적이 없음)의 사건·사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철근을 빼먹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고, 폭우에 강둑이 터져 지하차도가 잠겼다. 교육현장에서 애로를 겪던 초등교사는 극단선택을 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해 소설가들은 어떻게 작품 속에 녹여내고 있는가.

신간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는 '월급사실주의' 동인 소설가 11명이 한국사회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직접 겪고, 느끼고, 써내려간 우리 시대의 노동극 사실주의(Hyper Reality) 소설집이다. '월급 사실주의' 동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한국소설이 드물다. 우리 시대 노동현장을 담은 작품이 더 나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시대의 상처와 아픔을 들여다봤다. 동인들은 작품을 쓸 때 규칙적으로 ▲한국사회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다 ▲당대 현장을 다룬다 ▲발품을 팔아 사실적으로 쓴다 등 3가지 규칙을 정했다.

소설가 장강명은 '기획의 말을 대신하여'에서 2010년대 황석영 작가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우리시대 노동현장을 담은 작품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황 작가는



우리시대의 노동현장과 증산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한국소설이 드물다. 최근 서울 종로구 전태일거리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집회. /연합뉴스

2010년대 중반에 웹툰 '미생'과 '송곳'을 거론하며 "문학이 그런 서사를 다 놓치고 있다"면서 "한국문학의 위기는 한국문학 스스로가 현실에서 떨어져서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11명의 소설가들은 작품을 통해 한국사회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알바로 세계를 이어가는 청년여성과 장애 가족을 돌보는 노인여성(김의경 '순간적작제')을 비롯해 학습지 교사(서유미 '밤의 벤치'), IT회사 재무팀장(이서수 '광합성 런치'), 여행사 여직원(장강명 '간장에 독'), 20살 택배청년(주원규 '카스트 에이지'), 특성화고 교사(황여정 '섬광') 등이 현재의 세태를 대변한다.

"이거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삼사일은 멀쩡하거든. 오 일째에 살짝 벌어지고 칠 일째엔 떨어져. 떨어지면 또 붙이면 되고."(김의경 '순간적작제')

"저는 사료가 아니라 런치가 먹고 싶습니다. 제가 식물이면 광합성 런치라도 할 수 있지만, 이 런치 사료를 보고도 런치인 척해야 합니까?"(이서수 '광합성 런치')

11명의 소설가들이 보여주는 11편의 사회상은 한국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주택문제와 건축현장 비리, 청년세대의 고민 등 한국사회의 절박한 '먹고사는 문제'가 동인들의 개성적인 문제제기다 스며있다. 당대의 한국사회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움

니버스 영화와 같다. 이번 단편소설집에는 '월급 사실주의 2023'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월급사실주의' 동인들이 앞으로 '동시대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쓴 소설'을 축적해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저 현상들의 한가운데 있으며 그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통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 후대 작가들은 알 수 없는 것. 동시대 작가의 눈에만 보이는 것도 있다. 스타인 벡도 통쾌한 대공황을 불러왔다거나 재정지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를 소설에 쓴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마음으로 기획안을 쓰고 작가들을 모았다. 치열하게 쓰겠습니다."(소설가 장강명 '기획의 말을 대신하여')

〈문학동네·1만7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상대성이론의 결정적 순간들=상대성이론의 발견은 기존 물리학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엎었다. 최초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상대성이론은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었는데, 모든 좌표에서 통용되는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하기 이르는데 둘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와 함께 뉴턴 역학, 라이프니츠의 공간 논쟁이나 아인슈타인 박사학위 논문, 상대성이론 해석까지 시공간에 대해 다채로운 논의들을 이어간다. 〈현암사·2만원〉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IMF 이후 노숙인이 쏟아지던 1998년 어려운 이웃을 돕던 김 신부를 인건 식당 오마데오 사장이 급식소로 재공하면서 미담이 시작됐다. 안나의 집에는 일평균 750여 명, 25년간 300만여 명이 찾아 식사했다. 누군가 무료로 보내주는 쌀이나 음식, 1만여 명의 후원회원들이 보내주는 소액 후원을 기반으로 운영해 녹록치 않다. 그럼에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는 저자의 헌사는 사랑과 헌신, 감사와 희생이라는 가치를 상기시킨다. 〈니케북스·1만6800원〉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엄마이면서 의사인 저자가 정신질환을 앓는 딸과 7년간 함께 투병한 고군분투기. 양극성 장애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자는 딸의 아픔을 보고 충격받는다. 딸에게 그어진 무수한 자해 흔적을 보면서 함께 극복하



는 지혜를 떠올린다. 가족으로서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방법과 명심해야 할 생활계명을 담았다. 〈창비·1만8000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근대 유럽의 자본주의가 '부'에 대한 욕망이 아닌 엄격한 '금욕주의'와 함께 번성했다는 논지를 담았다.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의 정신'의 토대를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발견하는데, 종교 개혁과 근검절약을 중시하고 자본의 절약을 강조하던 윤리학은 베버의 논지와 교집합이 있다. 여기에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해설을 곁들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문예출판사·1만4000원〉

전쟁의 소용돌이 속 인간 군상... 그들은 왜 변절을 택했나

반역자와 배신자들

이준호 지음



1941년 여름 일본계 미국인 2세인 아이바 토쿠리 다키노는 이모가 위중하다는 소식에 병간호를 위해 일본으로 떠난다. 하지만 그해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습격, 전쟁이 개시되면서 그는 일본에 고립된다. 그녀는 전쟁 중 '라디오 도쿄'에서 연합군을 대상으로 선전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후일 반역죄로 재판을 받고 오랜 기간 감옥생활을 한다. 하지만 말년에는 그녀가 일본에서 살아남으려 애썼던 사정, 연합군 포로들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군인 단체로부터 상도 받는 등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언제나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 최근 우리나라를 달구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흥분도 흥상 존치, 정윤성 기법공원 논란이 그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준호의 '반역자와 배신자들-제2차 세계대전 속 논란의 인물들'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변절'을 택한 14명의 문제적 인물의 삶을 통해 당대의 역사를 이해하고, 근현대사의 오랜 문제점들을 되짚어 본 책이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었던 인간 군상들 중 '반역자' 내지는 '배신자'가 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했고, 누군가는 계급의 이익을 지키려 했고, 누구는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또 자신의 이념과 신념을 널리 전파 하려던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말로는 대부분 불행했고 처벌을 받았지만 극적으로 영웅 내지는 애국자로 위상이 반전된 경우도 있었다.

책은 '환멸에 따른 변절자', '시대의 희생양', '극단

적 신념의 추종자', '이기적인 배신자', '민족주의 투쟁가'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인물을 소개한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자신이 속해 있던 국가에 실망해 등을 돌린 이들도 있다. 한 때 모스크바 방어의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소련 장군 안드레이 블라소프는 스탈린의 폭정에 실망해 러시아 해방군을 조직, 독일 편에서 싸우게 된다.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을 다룬 영화 '작전명 발키리'를 통해서 알려진 독일의 보수 정치인 카를 괴르델리는 거사에 실패한 후 사형당했지만 종전 이후 그의 뜻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책에서는 또 영화 '새벽의 7인'의 소재가 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암살 사건 당시 특수부대원들을 팔아 넘기고 거액의 보상을 받은 체코 출신 군인 카렐 추르다, 전쟁영웅에서 괴뢰정부인 비시 프랑스의 수장이 돼 독일의 허수아비 앞잡이로 전락한 필리프 페탱, 죽어서야 조국 독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여배우 마를레네 디트리히 등의 이야기를 다룬다. 〈놀와·1만6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송아리는 아리송=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우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청소년 시집'. 교직 생활에 오래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낙관적 목소리를 낸다. 범생이, 돌, 단풍 등 일상적 소재들에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 제목과 같이 시집 전반에 언어유희와 유희가 흐르는데, 국어교사인 저자의 말솜씨가 여실히 드러난다. 〈창비교육·1만원〉

▲도깨비의 심장=주인공 치욱은 어린 아이 시신을 발견하는데, 아이가 쥐고 있던 목각 인형이 도깨비가 깃들었음을 느낀다. 동네로 다시 돌아와 보니 죽었다던 어린아이는 멀쩡하게 살아 돌아다니고 있었

다. 도깨비는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물건을 통해 탄생한다는 설화적 모티프 아래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펼쳐지는 소년의 모험기. 〈이지북·1만4000원〉

▲달터뷰=PBS(폴빛) 방송국에서 세계 최초로 '달남'을 인터뷰했다. 달은 온종일 하늘에서 쨍쨍한 해님에 비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터뷰에서 달이 밤새 하던 일을 들어 볼 수 있는데, 인력으로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거나 광합성 하던 나무들에 힘을 주기도 한다. 또 지구 자전축을 기울게 하는 등 천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과학적 지식을 다룬다. 〈폴빛·1만5000원〉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